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57
2. 소액결제시스템	64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68
4. 증권결제시스템	70

1.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결제규모

(원화자금)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 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20년 중 일평균 423.6조원으로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다.¹⁾

표 II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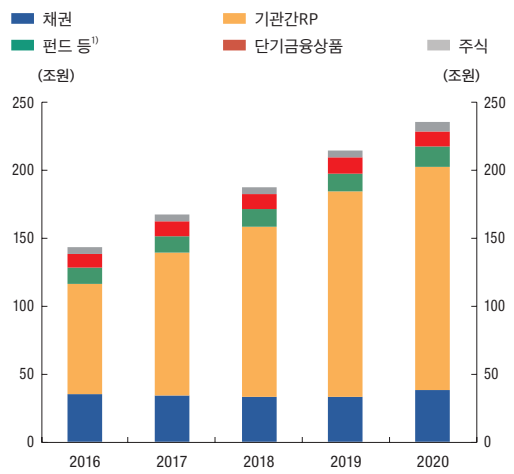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증감률
원화자금 합계	340.7	369.9	423.6	14.5
참가기관 간	324.8	353.9	405.0	14.5
콜거래자금	23.5	21.1	21.6	2.4
증권거래자금	187.9	214.6	236.1	10.0
외환거래자금 ¹⁾	15.9	14.6	14.8	1.9
고객거래자금 ²⁾	45.3	50.2	63.2	25.8
차액결제자금 ³⁾	18.1	18.1	22.5	24.0
기타	34.1	35.3	46.9	33.0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⁴⁾	15.9	16.1	18.5	15.4
외환거래자금 합계(십억달러) ⁵⁾	0.7	0.7	1.0	48.1

주: 1)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 결제금액
 2)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 연계결제 포함
 3)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의 차액결제
 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콜시장 규제완화 조치²⁾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2.4%)로 전환하였다. 증권거래자금³⁾ 결제금액은 기관간RP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RP를 통한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I-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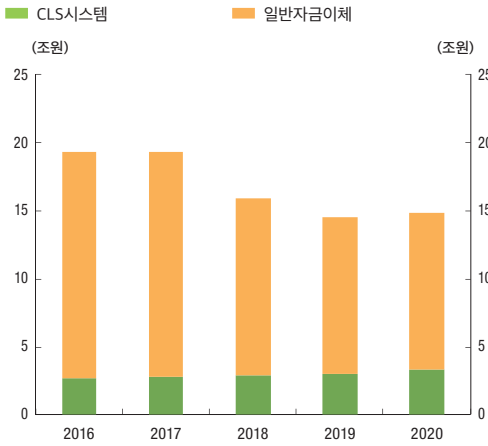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⁴⁾ 결제금액은 은행간 환거래시스템을 통한 일반자금이체가 감소(-1.0%)하였으나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가 늘어남(+13.3%)에 따라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 2020년 중 결제건수는 일평균 20,806건으로 전년(19,939건)에 비해 4.3% 증가하였다.
-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자기자본의 15% → 30%)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집합투자자산의 2% → 4%)를 한시적(2020년 5월 이후 단계적 정상화)으로 확대하였다.
- 증권대금동시결제(DvP)에 더해 분리결제 및 채권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한다. CLS시스템은 CLS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매도통화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를 국가 간 시차 없이 동시에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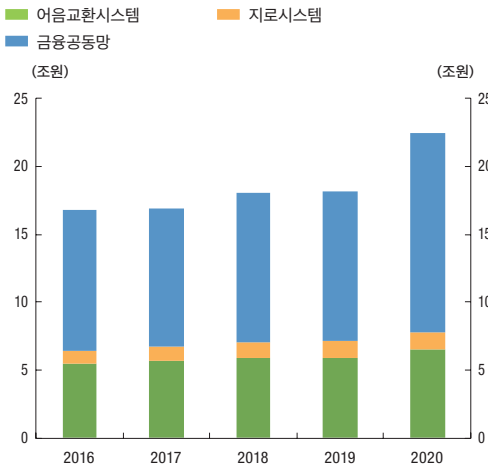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¹⁾ 결제금액(일평균)



주: 1) CLS는 차액 기준, 일반자금이체는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24.0%)한 22.5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III-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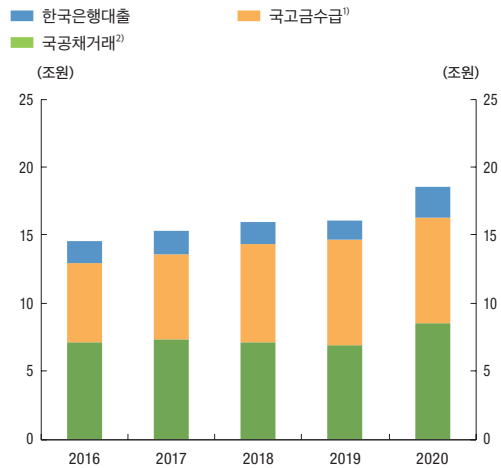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

액은 일평균 18.5조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하였다. 이는 국고채 단순매입,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⁵⁾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I-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일평균)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제 수급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환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외화거래자금)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 계정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중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일평균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48.1%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중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로 필요지급준비금이 늘면서 예치금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5)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증액(25조원 → 43조원)하였다.

표 II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이체	0.1	0.3	0.2	0.1	-13.9
예치	258.2	347.0	333.0	510.5	53.3
인출	272.7	359.5	343.2	491.1	43.1
합계	530.9	706.8	676.3	1,001.7	48.1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862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하였다.

표 II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일중당좌대출 ¹⁾	328.5	432.1	603.0	39.6
일중RP	2,147.9	2,618.1	2,883.2	10.1
계	2,476.4	3,050.2	3,486.2	14.3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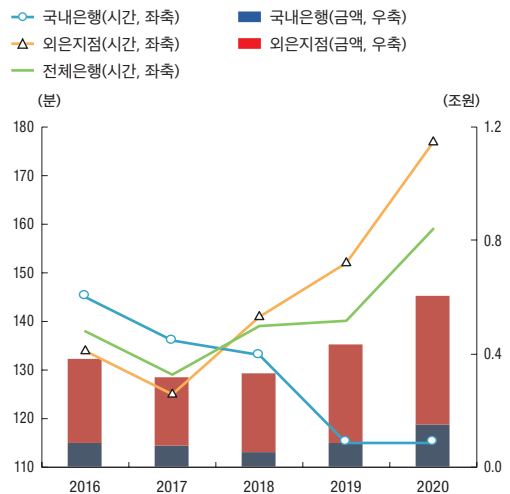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된다.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9.6% 증가한 일평균 6,030억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 이용금액은 국내은행이 1,4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30억원 증가하였고, 외

은지점은 4,5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9억원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19분 확대된 일평균 159분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의 이용시간이 115분으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외은지점이 177분으로 전년에 비해 25분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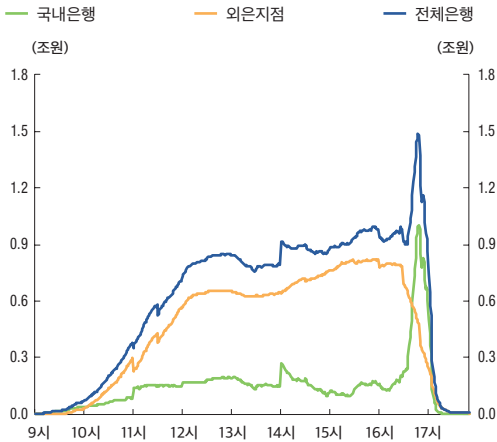
그림 III-5.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¹⁾ 및 시간(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은행의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은 자금이체가 집중되는 16시경까지 증가하다 16시 50분경 일중 최고치(14,849억원)를 기록한 뒤 감소로 돌아섰으며, 일중 최고치는 전년(7,620억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III-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¹⁾(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 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중 일평균 일중RP 공급규모는 장내 채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일중RP 이용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보다 10.1% 증가한 일평균 2조 8,832억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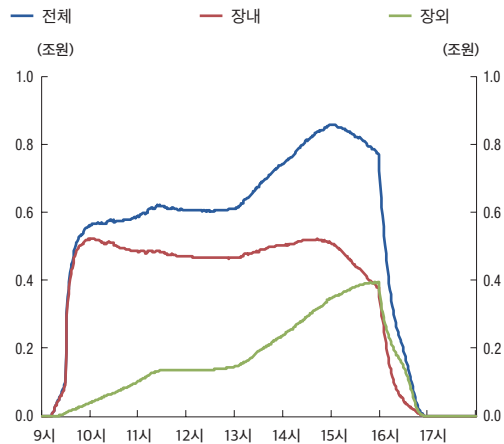
표 III-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원, %)

	2019			2020			증감률
	장내	장외	계	장내	장외	계	
한국거래소	1,382.8	-	1,382.8	1,742.5	-	1,742.5	26.0
금융투자회사	379.3	856.0	1,235.3	472.0	668.8	1,140.8	-7.7
계	1,762.1	856.0	2,618.1	2,214.5	668.8	2,883.2	10.1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0시경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13시부터는 장외 채권거래 결제를 위한 일중RP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다 공급마감시각(16:00)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일중 잔액 상환되었다. 한편, 일중RP 공급잔액은 전년(15시 50분)보다 48분 빨라진 15시 2분에 최고치(8,576억원)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7. 시간대별 일중RP 잔액¹⁾(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⁶⁾,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율은 3.8%로 전년(3.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 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3.3%로 전년(21.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6) 한은금융망에 접수된 자금 이체지시가 계좌잔액 부족으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일시 대기되는 비율이다.

표 III-5. 대기비용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금액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비용 ¹⁾	4.1	4.1	4.7	3.9	3.8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²⁾	20.7	19.4	20.4	21.3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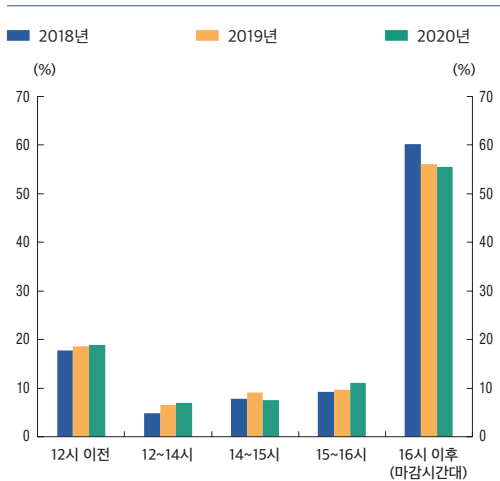
주: 1)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0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5.5%로 전년(56.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I-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¹⁾(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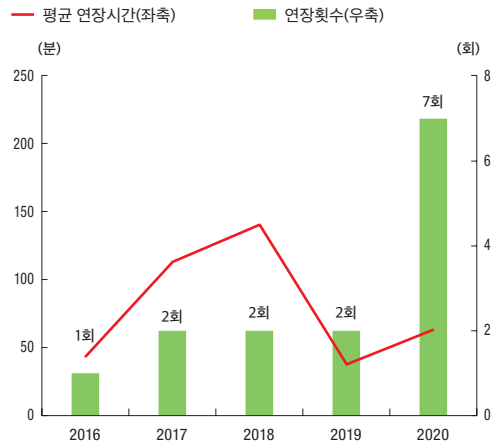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7회로 전년(2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도 63분으로 전년(38분)보다 늘어났다. 연장 사유별로 3건(2020.2월, 10월, 12월)은 참가기관의 전산장애, 2건(2020.7월, 10월)은 한국은행 전산장애에 따른 것이었다. 나머지

2건(2020.6월, 8월)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유동성조절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RP매매를 실시한 데 기인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 재개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정비, 담당직원 교육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전산장애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개발 기간 및 가동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체계를 점검·보완하였다.

그림 III-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에 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1.9만건, 19.7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 8.4%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²⁾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고전산망 처리 규모(일평균)

(천건, 조원, %)

		2019	2020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4.5	49.6	11.5
	파일 송수신	364.0	369.7	1.6
	(국고금 수납)	313.1	312.9	-0.1
	(국세 환급)	51.0	56.8	11.5
	계	408.5	419.3	2.6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6.1	17.6	9.3
	파일 송수신	2.1	2.1	1.6
	(국고금 수납)	1.8	1.8	0.1
	(국세 환급)	0.3	0.3	10.4
	계	18.2	19.7	8.4

자료: 한국은행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20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44.1조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고, 상환규모는 148.9조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1)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동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 2020년 중 근로·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건수는 486만건으로 전년(473만건)대비 증가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발행	163.7	159.8	142.1	144.1	1.4
상환	161.2	159.0	149.7	148.9	-0.5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는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한 715.8조원을 기록하였다.

증권매매 및 증권대차

(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증권매매	RP 매입	6.1	0.8	11.5	42.3	268.1
	RP 매각	622.6	600.9	536.2	662.5	23.5
	단순 매입	3.5	4.2	1.3	11.0	766.1
	계	632.2	606.0	549.0	715.8	30.4
증권대차(차입)		4.0	0.0	0.0	0.0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74.5조원으로 전년대비 71.6% 증가하였으며 상환규모는 59.2조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5.3조원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국고채권,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국고채권	발행	100.8	97.4	101.7	174.5	71.6
	상환	71.0	77.1	57.2	59.2	3.5
재정증권	발행	7.9	2.0	48.7	45.3	-7.0
	상환	7.9	2.0	48.7	45.3	-7.0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20년말 기준 34.3조원으로 전년대비 18.7조원(+119.9%)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020년 중 세 차례에 걸쳐 기존 25조원(2019년말 기준)에서 43조원으로 18조원 증액³⁾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¹⁾

(기말 기준, 조원,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금융중개지원대출	17.2	14.1	15.6	32.5	108.3
회사채·CP 매입기구(SPV ²⁾)에 대한 대출	-	-	-	1.8	-
합계	17.2	14.1	15.6	34.3	119.9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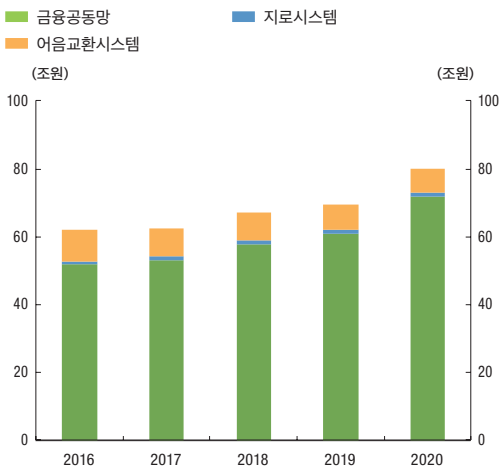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 및 소상공인 지원(3조원) 운용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2조원 증액하였다.

2.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

2020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이용규모⁷⁾는 일평균 2,788만건, 80.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3%, 15.2% 증가하였다. 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III-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348만건, 71.9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1%, 18.0%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표 II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건수	금융공동망	18,046	20,951	23,485	12.1
	(전자금융공동망)	12,178	14,236	16,114	13.2
	(타행환공동망)	319	295	273	-7.4
	(CD공동망)	1,700	1,548	1,226	-20.8
	어음교환시스템	329	252	199	-21.0
	(자기앞수표)	321	245	194	-21.1
	(어음 등 ¹⁾)	6	5	4	-17.1
	지로시스템	4,437	4,301	4,193	-2.5
	(일반이체)	873	798	727	-8.9
	(자동이체)	3,187	3,136	3,094	-1.3
	(대량지급)	304	311	328	5.6
	금액	금융공동망	57,925	60,917	71,906
(전자금융공동망)		51,793	54,823	65,261	19.0
(타행환공동망)		4,793	4,679	5,191	10.9
(CD공동망)		892	818	722	-11.7
어음교환시스템		8,002	7,661	7,249	-5.4
(자기앞수표)		1,249	1,132	1,038	-8.4
(어음 등 ¹⁾)		4,163	3,892	3,442	-11.6
지로시스템		1,024	1,030	1,042	1.1
(일반이체)		398	392	392	0.1
(자동이체)		372	380	383	1.0
(대량지급)		238	247	257	4.1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반면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는 일평균 20만건(-21.0%) 및 7.2조원(-5.4%)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자기앞수표, 어음 등의 교환건수는 5만원권 지폐,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되며 크게 감소하였다.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419만건으로 전년보다 감소(-2.5%)하였으나 금액은 일평균 1.0조원으로 전년보다 증가(+1.1%)하였다.

7) 금융공동망 및 지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결제리스크 관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작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⁹⁾는 2020년말 54.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6.1% 증가하였다.

표 III-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¹⁾ 현황

(기말기준, 조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직접참가기관	42.1	43.5	50.7	16.5
위탁기관	3.7	3.8	4.2	11.1
금융투자회사	2.0	2.0	2.0	1.2
기타 ²⁾	1.7	1.8	2.2	22.0
합계	45.7	47.3	54.9	16.1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액(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탁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2020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7.6%로 전년(17.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

(70%)을 상회한 횟수는 109회로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의 영향¹⁰⁾으로 전년(83회)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은행 1곳에서는 약 1시간 동안 법인고객들의 고액 출금이 몰리면서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약 400억원(120건)의 자금이체가 중단된 사례(2020.12월)가 있었으나, 동은행의 순이체한도 증액 및 담보증권 납입 조치 후 정상 처리되었다.

표 III-8. 순이체한도 소진 현황

(%)

	2016	2017	2018	2019	2020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¹⁾	19.4	18.5	18.6	17.2	17.6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51	71	87	83	109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이체한도의 일정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의 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2020년말 현재 담보인정금액은 30.8조원으로 한국은행의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¹¹⁾에 따라 전년말(37.1조원)보다 6.3조원 감소하였다.

8) 순이체한도는 지급지시 송신 누계금액에서 지급지시 수신 누계금액을 차감한 미결제 순이체액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지시 송신금액 급증 등으로 동 한도가 전액 소진될 경우 고객의 자금이체가 중단된다. 한국은행은 미결제 순이체액의 과도한 증가가 차액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축소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를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9) 순이체한도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전자금융공동망·타행환공동망 등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된다. 차액결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적격증권을 제공해야 하는데, 순이체한도 설정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그 한도의 50%, 순이체한도 설정대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평균 교환 순지급금액의 50%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방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의 담보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인하(70% → 50%)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1절의 '금융기관 차액결제 담보부담 완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I-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어음·수표

2020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2019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감소(-19.8%)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5.6%)하였다. 어음 등의 이용규모(금액기준)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대규모 유입¹⁾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확대되며 7.2% 증가하였다.

어음·수표 이용규모¹⁾(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건수	자기앞수표	485	366	292	-20.1
	정액권 (10만원권)	435	322	253	-21.3
	비정액권	313	225	168	-25.1
	어음 등 ²⁾	51	44	39	-10.9
	전자어음	15	13	11	-12.4
	전자어음	8.5	7.7	7.0	-9.1
	기타증서 ³⁾	2.1	1.9	1.6	-14.0
	합계	502	381	305	-19.8
금액	자기앞수표	1,658	1,455	1,338	-8.0
	정액권 (10만원권)	152	119	101	-14.9
	비정액권	31	22	17	-25.1
	어음 등 ²⁾	1,506	1,336	1,237	-7.4
	어음 등 ²⁾	15,212	13,175	14,124	7.2
	전자어음	1,099	1,262	2,283	80.8
	기타증서 ³⁾	2,590	2,637	2,769	5.0
	합계	19,461	17,267	18,232	5.6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분, 청구제시분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1)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예치 혹은 운용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전자어음 발행이 이루어진다.

계좌이체

2020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10.6%, 17.8%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펌뱅킹 등 비대면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 확대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가 건수(+13.2%) 및 금액(+19.0%)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하였다.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건수	입금이체 ¹⁾	14,816	16,678	18,388	10.3
	전자금융공동망 ²⁾	12,178	14,236	16,114	13.2
	(인터넷뱅킹 ³⁾)	6,629	7,838	8,980	14.6
	(펌뱅킹 ⁴⁾)	4,424	5,418	6,146	13.5
	타행환공동망	319	295	273	-7.4
	출금이체	6,932	7,883	8,768	11.2
	합계	21,749	24,560	27,156	10.6
금액	입금이체 ¹⁾	57,990	60,843	71,753	17.9
	전자금융공동망 ²⁾	51,793	54,823	65,261	19.0
	(인터넷뱅킹 ³⁾)	24,002	25,125	29,663	18.1
	(펌뱅킹 ⁴⁾)	20,925	21,752	25,606	17.7
	타행환공동망	4,793	4,679	5,191	10.9
	출금이체	785	936	1,049	12.0
	합계	58,774	61,779	72,801	17.8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지급카드

2020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6,310만 건 및 2.5조원으로 2019년보다 건수는 2.7% 감소하였고, 금액은 0.6% 증가하였다.

이를 지급카드별로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3.5% 및 0.3% 감소하였다.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 건수는 4.0% 감소하였으며 이용금액은 1.5% 증가에 그쳤다. 다만 선불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8배,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¹⁾

(천건, 십억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²⁾	35,967	40,470	39,039	-3.5
	체크카드	22,321	24,141	23,187	-4.0
	선불카드	67	86	734	752.7
	기타 ³⁾	36.0	141.4	141.8	0.3
	합 계	58,392	64,838	63,101	-2.7
금액	신용카드 ²⁾	1,862	1,967	1,961	-0.3
	체크카드	502	532	540	1.5
	선불카드	2.1	2.5	17.0	590.8
	기타 ³⁾	1.4	2.4	2.3	-6.4
	합 계	2,367	2,505	2,521	0.6

주: 1) 개인 및 법인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규모 기준

2) 현금서비스 제외

3) 현금IC카드 및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경영은행, 금융결제원

결제방식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체의 영향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결제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16.9% 증가한 반면, 대면결제는 5.6% 감소하였다.

지급카드¹⁾ 결제방식별 금액(일평균)²⁾

(십억원, %)

	2019	2020	증감률
대면결제	1,481	1,398	-5.6
비대면결제	726	849	16.9
합 계	2,207	2,247	1.8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한 규모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2)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접근기기별로는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가 전년대비 16.4%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 이용 결제규모는 7.4% 감소하였다. 이는 모바일기기 기반의 비대면결제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면결제도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기기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지급카드¹⁾ 접근기기별 금액(일평균)²⁾

(십억원, %)

	2019	2020	증감률
실물카드	1,355	1,225	-7.4
모바일·PC 등 ³⁾	852	992	16.4
합 계	2,207	2,247	1.8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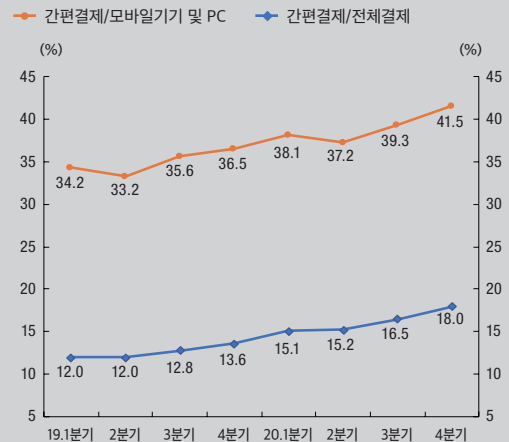
2) 개인 및 법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한 규모 기준(잠정치)

3) ARS, 생체인식 등 포함

자료: 전업카드사

한편,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결제 중 간편결제 서비스²⁾를 이용하는 비중은 높은 편의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¹⁾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자료: 한국은행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결제규모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시스템¹²⁾,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¹³⁾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2020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¹⁴⁾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72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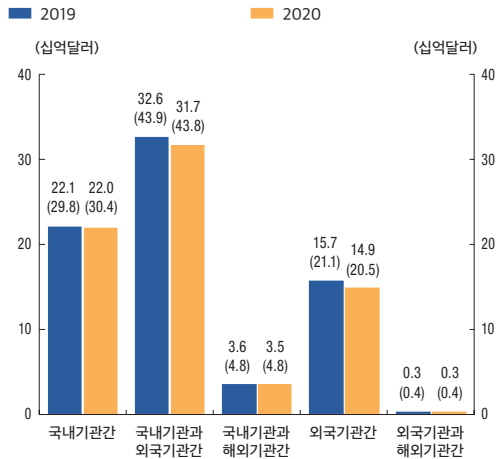
표 III-9. CLS시스템 결제규모¹⁾(일평균)

(십억달러, %)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50.7	65.4	74.3	72.4	-2.6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 차감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¹⁵⁾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30.4%, 외국기관 간 결제가 20.5%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¹⁾²⁾(일평균)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 기준
 2) () 내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참고로 2020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5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8개, 외은지점 19개, 외국 금융투자회사 1개)이 참가하고 있다. 2020년 중 2개의 국내 금융투자회사(KB증권, 하나금융투자)가 CLS시스템에 신규 참가하였다.

12)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국가 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 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continuous) 연계(linked)되어 결제(settlement)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3)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통화별로 외화예수금 계좌를 개설해 놓은 국내 운영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다수의 은행이 외화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동일 시간대에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위안화에 대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은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이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14)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15) 국내기관(국내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은행 및 외국금융투자회사)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2020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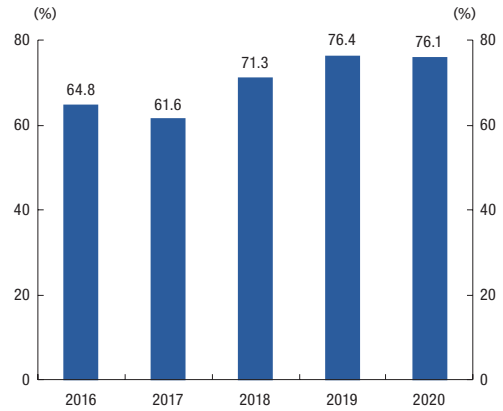
결제 주체		참가기관
국내 기관	은행 (17)	국민, 농협, 광주, 대구, 하나, 수협, 수출입, 부산,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우리, 신한, 제주, SC제일, 한국씨티
	금융 투자 회사 (8)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외국 기관	은행 (19)	HSBC, BOA, BNP파리바, SMBC, ING, 모건스탠리,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엠유에프지,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 DBS, 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소시에테제네랄, 대화, 중국, 미즈호, ANZ
	금융 투자 회사 (1)	노무라금융투자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외환동시결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 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 리스크가 축소되는데, 2020년 중 외환동시결제 비중(76.1%)은 전년(7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I-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¹⁾²⁾(일평균)



주: 1)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한편, CLS시스템은 외환결제를 다자간 차감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결제 필요 유용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2020년 중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¹⁶⁾은 95.0%로 나타났다.

16) 결제유동성 절감비율(%) 산출식은 '[1-(실제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 (유동성절감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이다.

4.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규모

2020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05.1조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 이 중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3.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5.2% 증가하였다. 장외거래 결제규모도 일평균 201.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9.7%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간RP(+9.1%)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I-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십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증감률	
장내결제	주식	566	484	758	56.7
	채권 ¹⁾	1,608	1,898	2,413	27.2
	파생금융상품	112	108	195	80.6
	소계	2,286	2,489	3,366	35.2
장외결제	주식 ²⁾	815	669	915	36.9
	채권 ³⁾	10,214	10,508	12,399	18.0
	기관간RP	128,123	155,271	169,422	9.1
	단기금융상품 ⁴⁾	9,086	10,061	9,964	-1.0
	펀드 등 ⁵⁾	7,027	7,357	8,961	21.8
	파생금융상품 ⁶⁾	30	45	66	48.0
소계	155,294	183,911	201,727	9.7	
합계	157,581	186,400	205,093	10.0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의무청산 개시(2014.6.30) 이후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IRS 결제금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2020년 중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2020년 중 모두 기준시한(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

표 III-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

구분	결제 시한 ¹⁾	기준 시한 ²⁾	2018	2019	2020
장내주식	16:00	16:00	0.025	0	0
장내국채	16:00	17:00	0	0	0
장외 주식기관 투자자	16:50	16:50	0.14	0.024	0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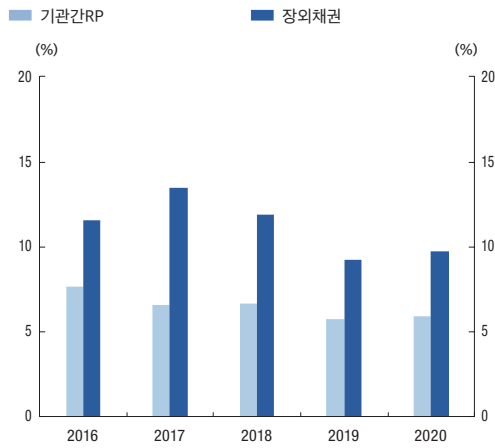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기관간RP 및 장외채권 거래의 경우 한은금융망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¹⁷⁾의 비중이 2020년 각각 5.9% 및 9.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17) 증권결제 시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않은 증권의 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대금동시결제와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므로 결제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III-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¹⁾²⁾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